

타이완의 리볼론 전략

- 최신 설비로 일본 품질 · 타이완 가격을 모토로

타이완(臺灣)의 합섬 메이커 브랜드 리볼론(LIBOLON)이 저팬 텍스(Japan Tex : JT)에 다섯 번째로 출품하였다. 리볼론은 역려 그룹(力麗 group) 산하(傘下)의 역려와 역봉(力鵬)이 2007년에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의 두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코어 브랜드(core brand)이다. 역려 그룹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 ENPLA, EP) 용도와 텍스타일 용도의 고분자 원료를 공급하여 중합으로부터 연사, 방적, 생지 생산, 염색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체제를 갖추었으므로써 안정된 품질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팬 텍스에 출품하여 일본의 인테리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총경리(總經理 : 專門經營人)에게 현황과 앞으로 나갈 방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저팬 텍스에 출품하여 일본 시장을 깊이 파고 들어가

우리 회사는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해외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 안에서 크게 나누어 3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나일론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일론 6 폴리머 생산 커패시티(capacity : 용량)를 가지고 있다. 6개 라인으로 연간(年間) 생산량은 38만 톤이다. 생산된 나일론 칩(nylon chip)은 텍스타일용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EP 용도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사업에서는 고객 니즈(needs)에 맞춰 가공사를 오더 메이드(order-made)하고 있다. 2010년에도 최신 가연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그 생산 품목은 300종 이상이 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보틀(bottle) 용도의 칩 생산을 시작하여 각종 용기나 포장용 재료를 시장에 제안하고 있다.

또한 패브릭(fabric) 사업에 대하여는 특히 인테리어용 생지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에코형 방염 차광 커튼(eco型 防炎 遮光 curtain), 테이블 클로스

(table cloth), 소파(sofa) 등의 가구용이다. 그 외로 부가 가치가 높은 스포츠 아웃도어(sports outdoor)와 백(bag) 용도의 소재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직기의 스크랩 앤 빌드(scrap & build)를 실시하여 낡은 설비를 폐기하는 데에 맞춰, 광폭(廣幅) 멀티 직기(multi loom)와 에어 제트 직기(air jet loom)를 포함하여 많은 최신형 직기를 도입하고 있다.

저팬 텍스에는 이번 출품이 5번째인데 JT는 인테리어 업계의 엑스퍼트(expert)가 모이는 전시회라고 느끼고 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 매력적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환경과 기능성을 앞으로 내놓고 전시한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코형 방염 차광 생지와 기능성을 만들어 낸 차광 소재를 채용해 주도록 고객에게 요구하고 있다. 에코형 방염 차광 생지에서는 할로젠 프리(halogen free) 방염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방염 효과가 있으며 불에 타도 연기가 안 나는 것이다. 지구 환경을 고려한 페트-보틀 리사이클(PET-bottle recycle) 섬유를 출품하고 있다. 차광 관련으로는 기능성 4컷(cut) 차광 소재를 제일 앞으로 내놓고 있다. 이 소재는 섬유내의 공기층(空氣層)으로 열전도를 막는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이다.

4컷(cut)이란 광(光), 더위(暑), 추위(寒), 자외선(紫外線)을 차단하는 효과를 말한다. 여름철에는 햇살을 동계에는 추위를 차단한다. 그 효과는 일반적인 차광 소재보다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차광 효과는 99.99%이고, 자외선 차단 지수(遮斷 指數)는 UPF 50+라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환경을 중요시한 신상품 만들기가 중심

리볼론은 환경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에코 제품을 열심히 연구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것들 중 몇 개를 소개해 보면 먼저 ‘에코야(Ecoya)’가 있다. 염색이나 후가공(後加工)에서 사용되는 중유(重油)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대량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물과 화학 약품을 소비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폐수를 만든다. 에코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염색, 후공정(後工程)을 생략할 수가 있다. 또한 내광(耐光), 내수(耐水), 세탁 견뢰도가 좋으며 염색 재현성도 아주 좋다.

그 외에 이형 단면에 의한 흡습 속건(吸濕 速乾) 기능과 나노 레벨의 옥석(玉石) 미립

자를 이겨 넣음으로써 냉감(冷感) 기능을 갖춘 ‘쿨 베스트 II(CoolBest II)’, ‘세코텍 II(SecoTec II)’가 있다. 페트-보틀 리사이클 섬유(PET-bottle recycle fiber)로, 타이완 환경 보호서(台灣 環境 保護署)나 세계 기준의 GSR 인증을 받은 ‘리페트(RePET)’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리페트는 ‘H&M (Hennes & Mauritz)’ 등의 유명 브랜드(有名 brand)에도 납품하고 있다.

이 외에는 리볼론이 에코플라잉 프로젝트(EcoFly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요람에서 요람으로’를 콘셉트(concept)로 환경을 의식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WPC(Wooden Plastic Composite : 목재-플라스틱 복합) 제품이 그 대표이다. WPC는 실이나 생지의 공장 폐자재(工場 廢資材)와 나무밥(톱밥 · 대팻밥)을 비례적으로 혼합하여 성형하여 가구나 건자재(建資材)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 리볼론의 WPC 제품은 100% 리사이클이 되며 경량, 가공의 간편함, 강도와 같은 목재와 플라스틱의 2가지 장점(merit)을 가지고 있다.

방수, 습기 방지, 방충 효과, 치수 안정성, 내구성도 높은 수준(level)으로 실현되고 있다.

일본 마켓은 경쟁이 심한 선진형 시장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합섬 업계에도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특징의 하나로써 많은 합섬 메이커는 범용 제품의 상품에서 철퇴(撤退)하였다. 그렇게 되는 데에 따라 타이완 화섬 제품은 기능성이나 안정된 품질을 메리트로 일본 바이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리볼론은 언제나 ‘일본 품질 타이완 가격’을 모토로 함으로써 칩(chip), 실, 텍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일본의 여러 분야(分野)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